

행정자료를 이용한 외국인 추계방법 개발

양경진 · 김형석

목 차

제1절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표	2
3. 연구 내용	3
제2절 체류외국인 추이 및 정책 동향	3
1. 국적별 체류외국인 추이	3
2.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추이	5
3. 국제혼인 추이	6
4. 정책 동향	9
제3절 이론적 검토 및 UN의 전망	10
1. 이론적 검토	10
2. UN의 전망	15
제4절 장래 체류외국인 추계방법	17
1. 체류외국인 추계의 특징	17
2. 외국인 통계 자료의 특성	17
3. 가 정	18
4. 추계 방법	20
제5절 장래 체류외국인 추계 결과	21
1. 국적별 체류외국인	21
2.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23
3. 연령별 체류외국인	25
4. 등록 및 체류기간별 체류외국인	27
제6절 결론 및 토론	29

표 목 차

<표 1> 주요 국적별 체류 외국인 추이	4
<표 2> 중국 내 조선족 인구 추이	4
<표 3> 주요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추이	6
<표 4> 국제혼인 추이: 1990~2007	7
<표 5> 국적별 국제혼인 추이: 1995~2007	8
<표 6>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의 혼인종류별 구성비	9
<표 7> 한국이 필요로 하게 되는 국제이동 규모: UN 전망	16
<표 8> 국적별 추정방법	20
<표 9> 주요 국적별 체류 외국인 추정	22
<표 10> 체류자격별 외국인 추정	24
<표 11> 연령별 외국인 추정	26
<표 12> 등록 및 단기체류별 외국인 추정	28

그림 목차

[그림 1] 중국 내 조선족의 연령구조	5
[그림 2] 아시아 주요국의 1인당 GNI	11
[그림 3] 우리나라의 1차 및 2차 인구변천 모형	B
[그림 4] 주혼인 연령층(20-49세)의 성비 및 남녀 차이: 1990-2050년	14
[그림 5] UN의 국제순이동률 전망	15
[그림 6] 국적별 체류 외국인수 추정	23
[그림 7]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수 추정	25
[그림 8] 연령별 체류 외국인수 추정	27
[그림 9] 등록 및 단기체류별 외국인수 추정	29

행정자료를 이용한 외국인 추계방법 개발

제1 절 서론

1. 연구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이전보다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공존해가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던 외국인에 대한 생각도 점차 단순한 손님이라는 시각에서 자국민과 함께 공존해 가야하는 이웃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인구 재생산은 물론 가구 수준에서 생산이나 소비의 주체가 되며 노인 및 아동부양을 담당하는가 하면 가족 개개인의 정서적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체류외국인 증가 현상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전국의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특히, 내국인들이 기피하여 공동화된 3D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의 원동력으로서 우리나라 국부 창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결혼시장의 성비 불균형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곧바로 그들에 대한 복지 문제, 다문화가정 내에서의 정착 문제, 불법체류자의 처리 문제 등 체류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표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 행정자료를 이용한 외국인 추계방법 개발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노력의 시작은 정책적 기초자료의 확보라 할 수 있으며, 외국인 관련 문제는 중장기적인 사안으로서 응당 중장기적 전망을 담고 있는 통계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다.

체류외국인 추계자료는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은 물론 기존 통계의 정도 제고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인구주택총조사가 현실적으로 체류자격의 불법성과 관련하여 조사누락의 가능성으로 인해 체류외국인 규모에 대한 정도 높은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체류외국인 추계 결과는 조사누락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표집단(target population) 설정의 기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추계는 기초가 되는 국제 인구이동이 인구현상 중 정의되거나 측정하기 가장 어려운 현상으로서 일반적인 인구추계와 달리 어려운 부분의 추계로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국제이동의 양과 속도가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 및 정책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다른 인구변동 요인(출생, 사망)보다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외국인 추계의 경우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련 행정자료를 이용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매년 산술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산술적 추정방식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현실과 큰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서의 대안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2. 연구 목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의 국적, 체류자격 등의 현황을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새로운 추계방식 도입을 위한 이론적 배경의 검토를 통해 체류외국인의 규모를 추계하였다. 본 추계의 결과를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물론,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기반 센서스 실시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인 부분의 목표집단 설정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사회정책의 통계적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추계방식을 과거 행정자료상의 외국인 규모에 대한 추이를 선형로그 및 지수 등 수학적 성장곡선으로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세부적인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변화의 방향, 변화량, 속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했다.

구체적 연구의 내용으로는 먼저,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특성과 노동이동 및 혼인이주에 관한 국제인구이동 이론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였으며, 이러한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체류외국인에 대한 연령, 체류자격 등에 대한 추계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록하였다.

제2절 체류외국인 추이 및 정책 동향

1. 국적별 체류외국인 추이

장래 추계를 위한 성장곡선의 도출에 필요한 과거의 체류외국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국적별 외국인 추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체류외국인의 국적은 조선족과 중국인, 기타 외국인으로 분류하였다. 출입국 행정자료에 따르면 체류외국인의 규모는 2000년 말 49만 1천 명에서 2007년 말 106만 6천 명으로 늘어 2000~2007년 기간 중 매년 11.7%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에 조선족의 경우는 9만 1천 명에서 32만 9천 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20.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분포에 있어서는 2007년 말 현재 조선족 37.0%, 중국인 16.4%, 기타 외국인은 52.8%로 나타났으며 조선족 비율의 경우, 2000년 말 18.6%에서 2007년에는 12.2%p 증가한 30.8%로 집계되었다.

4 행정자료를 이용한 외국인 추계방법 개발

<표 1> 주요 국적별 체류 외국인 추이

(명, %)

연도	체류외국인		조선족		중국인		기타 외국인	
	명	%	명	%	명	%	명	%
1999	381,116	100.0	67,036	17.6	49,963	13.1	264,117	69.3
2000	491,324	100.0	91,455	18.6	68,020	13.8	331,849	67.5
2001	566,835	100.0	112,334	19.8	88,850	15.7	365,651	64.5
2002	629,006	100.0	118,300	18.8	105,110	16.7	405,596	64.5
2003	678,687	100.0	132,305	19.5	105,192	15.5	441,190	65.0
2004	750,873	100.0	161,327	21.5	120,607	16.1	468,939	62.5
2005	747,467	100.0	167,589	22.4	114,441	15.3	465,437	62.3
2006	910,149	100.0	236,854	26.0	145,383	16.0	527,912	58.0
2007	1,066,273	100.0	328,621	30.8	174,806	16.4	562,846	52.8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 통계연보(매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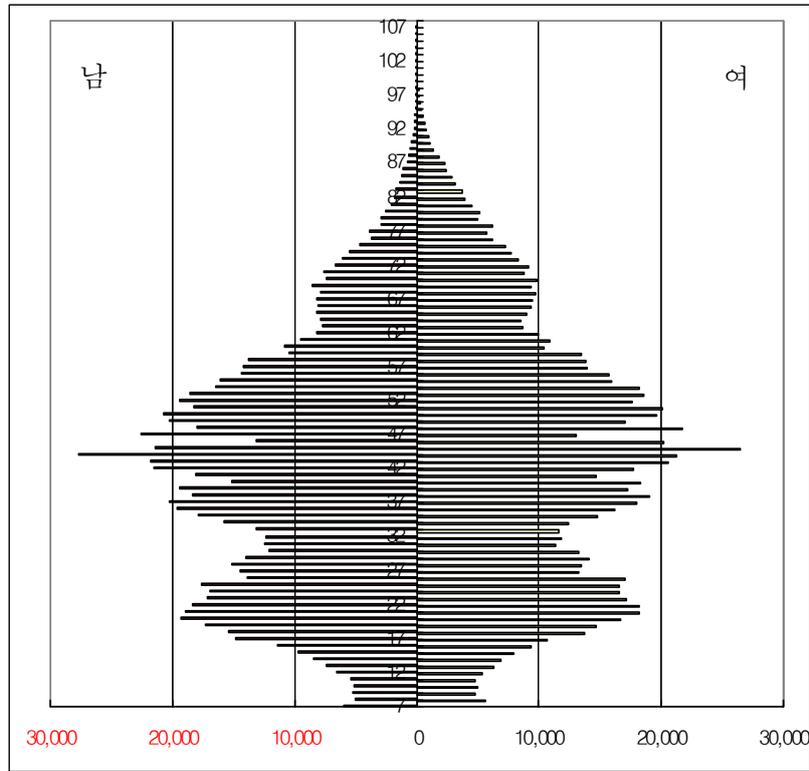
중국의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조선족은 이미 1990~2000년 사이부터 총인구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007년 현재로 변경해 본 연령구조의 분포에서 20세 미만의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로의 조선족 인력송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표 2> 중국 내 조선족 인구 추이

(천명, %)

연도	총인구(a)	조선족(b)	구성비(b/a)
1953(7.1.)	594,347	1,120	0.19
1964(7.1.)	697,943	1,349	0.19
1982(7.1.)	1,008,175	1,766	0.18
1990(7.1.)	1,133,683	1,921	0.17
2000(11.1.)	1,265,830	1,920	0.15
2005(추정)	1,307,560	1,831 ¹⁾	0.14

주: 1) 중국의 1% 인구표본조사(2005)의 조선족 비율을 이용해 추정



주: 2000년 중국센서스 자료를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2007년으로 단순히 연령을 이동해 재구성

[그림 1] 중국 내 조선족의 연령구조

2.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추이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에 대해 주요 체류자격을 ‘단순노무’, ‘전문기술직’, ‘혼인’, ‘유학’, ‘기타’ 등 5가지로 분류하여 집계할 경우, 우선 ‘단순노무’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국제이동의 주요 원인인 노동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반영돼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혼인에 의한 국제이동의 비율도 2003년 6.5%에서 2007년 10.4%로 단기간 내 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6 행정자료를 이용한 외국인 추계방법 개발

〈표 3〉 주요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추이

(명, %)

연 도	총 수		단순노무		전문기술		혼인		유학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03	678,687	100.0	166,942	24.6	17,760	2.6	44,416	6.5	9,705	1.4	439,864	64.8
'04	750,873	100.0	185,218	24.7	17,916	2.4	57,069	7.6	14,407	1.9	476,263	63.4
'05	747,467	100.0	166,398	22.3	20,192	2.7	75,011	10.0	20,683	2.8	465,183	62.2
'06	910,149	100.0	237,868	26.1	24,294	2.7	93,786	10.3	30,101	3.3	524,100	57.6
'07	1,066,273	100.0	410,370	38.5	28,911	2.7	110,362	10.4	38,909	3.6	477,721	44.8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 통계연보(매년말 기준)

3. 국제혼인 추이

1990년부터 최근까지의 국제혼인 추이를 살펴보면, 1990~1994년에 연 5천 건 수준(전체 혼인의 약 2%)의 국제혼인이 1995년부터는 전체 혼인의 3.4% 수준인 1만 3천 건 수준으로 급증하였고, 최근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체 혼인 중 11%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제혼인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혼인의 양상도 1994년까지 국외 유출이 많았던 반면 1995년부터는 국내유입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국제혼인의 전년대비 증감률이 2006년 -8.0%를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에도 -3.0%를 보이는 등 국제혼인의 규모가 다소 주춤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최근의 국제혼인 증감률의 감소는 과거 IMF 경제위기 시기였던 1997부터 1999년까지의 국제혼인 감소 추세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표 4> 국제혼인 추이: 1990~2007

연도	총 혼인 건수 (a)	외국인 과 혼인 (b)	증감률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 (c)	외국인과 외국인 대비 (%)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 (d)	외국인과 외국인 대비 (%)
			증감률 (%)	총 혼인 대비 (%)				
1990	399,312	4,710	-	1.2	619	13.1	4,091	86.9
1991	416,872	5,012	6.4	1.2	663	13.2	4,349	86.8
1992	419,774	5,534	10.4	1.3	2,057	37.2	3,477	62.8
1993	402,593	6,545	18.3	1.6	3,109	47.5	3,436	52.5
1994	393,121	6,616	1.1	1.7	3,072	46.4	3,544	53.6
1995	398,484	13,494	104.0	3.4	10,365	76.8	3,129	23.2
1996	434,911	15,946	18.2	3.7	12,647	79.3	3,299	20.7
1997	388,591	12,448	-21.9	3.2	9,266	74.4	3,182	25.6
1998	375,616	12,188	-2.1	3.2	8,054	66.1	4,134	33.9
1999	362,673	10,570	-13.3	2.9	5,775	54.6	4,795	45.4
2000	334,030	12,319	16.5	3.7	7,304	59.3	5,015	40.7
2001	320,063	15,234	23.7	4.8	10,006	65.7	5,228	34.3
2002	306,573	15,913	4.5	5.2	11,017	69.2	4,896	30.8
2003	304,932	25,658	61.2	8.4	19,214	74.9	6,444	25.1
2004	310,944	35,447	38.2	11.4	25,594	72.2	9,853	27.8
2005	316,375	43,121	21.6	13.6	31,180	72.3	11,941	27.7
2006	332,752	39,690	-8.0	11.9	30,208	76.1	9,482	23.9
2007	345,592	38,491	-3.0	11.1	29,140	75.7	9,351	24.3

자료: www.kosis.kr(2008.10.)

국적별 국제혼인 추이에서는 1994년까지는 주로 국제혼인의 형태가 ‘한국인 처 + 외국인 남편’의 형태가 많았던 추세였는데, 1995년 이후부터는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처’의 형태로 바뀌었다.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의 국제혼인 중 남녀 간 국적의 패턴에 있어서도 외국인 남편의 국적이 1990년대 초에는 주로 미국과 일본의 남성이었다는 것이 중국의 비율이 높아져 일본과 중국으로 변화되었다.

8 행정자료를 이용한 외국인 추계방법 개발

<표 5> 국적별 국제혼인 추이: 1995~2007

연도	총혼인 건수 (a)	외국인과의 혼인 (b=c+d)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								
			계(c)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기타
1995	398,484	13,494	10,365	1,412	8,450	188	*	*	*	*	315
1996	434,911	15,946	12,647	2,370	9,271	228	*	*	*	*	778
1997	388,591	12,448	9,266	1,075	7,362	213	*	*	*	*	616
1998	375,616	12,188	8,054	1,004	4,688	1,514	*	*	*	*	848
1999	362,673	10,570	5,775	1,248	2,883	280	*	*	*	*	1,364
2000	334,030	12,319	7,304	1,131	3,586	235	95	1,358	77	*	822
2001	320,063	15,234	10,006	976	7,001	265	134	510	118	*	1,002
2002	306,573	15,913	11,017	959	7,041	267	476	850	195	*	1,229
2003	304,932	25,658	19,214	1,242	13,373	323	1,403	944	318	19	1,592
2004	310,944	35,447	25,594	1,224	18,527	344	2,462	964	504	72	1,497
2005	316,375	43,121	31,180	1,255	20,635	285	5,822	997	561	157	1,468
2006	332,752	39,690	30,208	1,484	14,608	334	10,131	1,157	594	394	1,506
2007	345,592	38,491	29,140	1,665	14,526	377	6,611	1,531	745	1,804	1,881

연도	총혼인 건수 (a)	외국인과의 혼인 (b=c+d)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									
			계(d)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파키스탄	호주	영국	독일	기타
1995	398,484	13,494	3,129	1,751	207	891	*	*	*	*	*	280
1996	434,911	15,946	3,299	1,789	191	965	*	*	*	*	*	354
1997	388,591	12,448	3,182	1,670	151	902	*	*	*	*	*	459
1998	375,616	12,188	4,134	1,818	514	981	*	*	*	*	*	821
1999	362,673	10,570	4,795	2,649	234	1,190	*	*	*	*	*	722
2000	334,030	12,319	5,015	2,941	218	1,095	149	39	74	66	85	348
2001	320,063	15,234	5,228	3,011	222	1,132	164	64	79	70	97	389
2002	306,573	15,913	4,896	2,377	272	1,210	174	126	89	87	84	477
2003	304,932	25,658	6,444	2,613	1,199	1,237	223	130	108	88	93	753
2004	310,944	35,447	9,853	3,378	3,621	1,348	230	103	136	120	110	807
2005	316,375	43,121	11,941	3,672	5,042	1,413	285	219	102	106	85	1,017
2006	332,752	39,690	9,482	3,756	2,597	1,455	308	152	139	138	129	808
2007	345,592	38,491	9,351	3,684	2,489	1,344	376	134	159	126	99	940

자료: www.kosis.kr(2008.10.)

국제혼인 중 초혼과 재혼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처’의 경우에는 초혼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재혼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인 처 + 외국인 남편’의 경우는 초·재혼 비중의 변동이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의 혼인종류별 구성비 (단위: %)

혼인종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한국인 남편 +외국인 처	초혼(A)	75.8	67.4	66.8	59.0	54.1	56.2	64.0	63.2
	재혼(B)	24.2	32.6	33.2	41.0	45.9	43.8	36.0	36.8
	비(A/B)	3.1	2.1	2.0	1.4	1.2	1.3	1.8	1.7
한국인 처 +외국인 남편	초혼(A)	63.4	61.6	65.3	57.6	47.1	44.3	56.5	58.9
	재혼(B)	36.6	38.4	34.7	42.4	52.9	55.7	43.5	41.1
	비(A/B)	1.7	1.6	1.9	1.4	0.9	0.8	1.3	1.4

자료: www.kosis.kr(2008.10.)

4. 정책 동향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영구이민 정책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나라로서 단순히 기능인력의 활용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1993년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3D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의 근로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려 왔다. 외국인의 편법적 고용, 외국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인력 송출관련 비리 등의 외국인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불법적 체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2004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를 단행하였다. 2000년 3월 말 기준으로 국내체류기간 4년 미만의 불법 체류 외국인은 227천 명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대상자의 80.9%에 달하는 184,199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E-9’ 자격이 부여되는 합법화 조치로 양성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성화 조치는 2006년 12월 현재 10개국을 대상으로 MOU 체결을 통한 송출국가 선정작업을 거쳐 2007년 1월부터는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전문기술의 인력에 대해서는 취업을 허용하였으나 그 수가 2만여 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이 영어회화, 예술홍행 등에 국한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고용계약 체결 등 일정한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어 취업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와 같다.

- ① 교수 (E-1)
- ② 회화지도 (E-2)
- ③ 연구 (E-3)
- ④ 기술지도 (E-4)
- ⑤ 전문직업 (E-5)
- ⑥ 예술홍행 (E-6)
- ⑦ 특정활동 (E-7)

최근에는 국제혼인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증가, 다인종 경향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정책에 대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05년 5월 및 7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대통령 보고내용과 2006년 4월 ‘법무부’의 대통령 보고내용을 통해 향후 정책적 기조를 엿볼 수 있다. 그 주요골자는 아래의 내용과 같다.

- 2005년 보고내용: 단일국적제 유연화, 재외동포 활용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유학생 적극 활용, 사회통합 프로그램 확충, 이민관련 법령·기구 정비, 고용 허가제 도입 등
- 2006년 보고내용: 외국인 차별 해소, 난민지원 강화, 영주자격 확대, 숙련외국인 장기체류 허용 등

제3 절 이론적 검토 및 UN의 전망

1. 이론적 검토

대표적인 국제인구이동관련 이론으로는 신고전경제학 모형(the

neoclassical model), 신이주경제학 모형(the economics model of migration), 노동시장 구획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세계체계론(the world system), 사회자본론(the social capital theory), 누적원인론(cumulative causation)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국제이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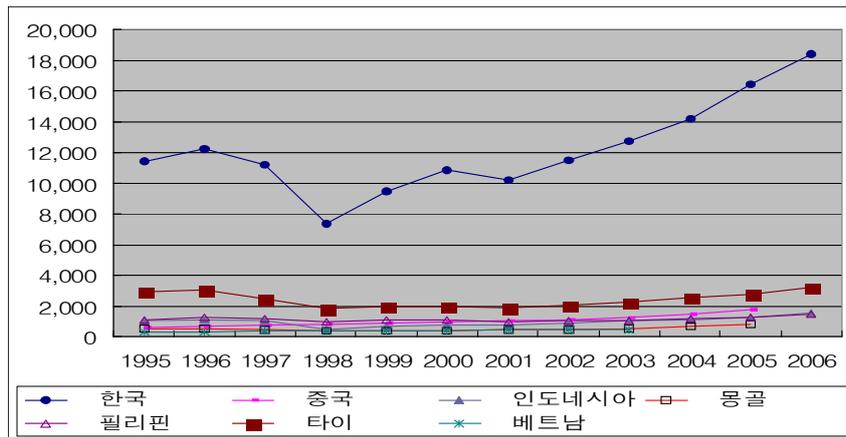
가. 노동이동

1) 국제이동의 신고전경제학 이론

(The Neoclassical Economic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국제이동에 대한 신고전경제학 이론의 경우 국제적인 노동이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임금(또는 소득) 격차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적용하여 살펴 볼 경우, [그림 2]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요 노동이주 송출국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의 1인당 GNI가 우리나라와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2001년을 기점으로 이들 나라와의 GNI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본 이론에 기초할 때, 앞으로 노동이동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아시아 주요국의 1인당 GNI

2) 노동시장 구획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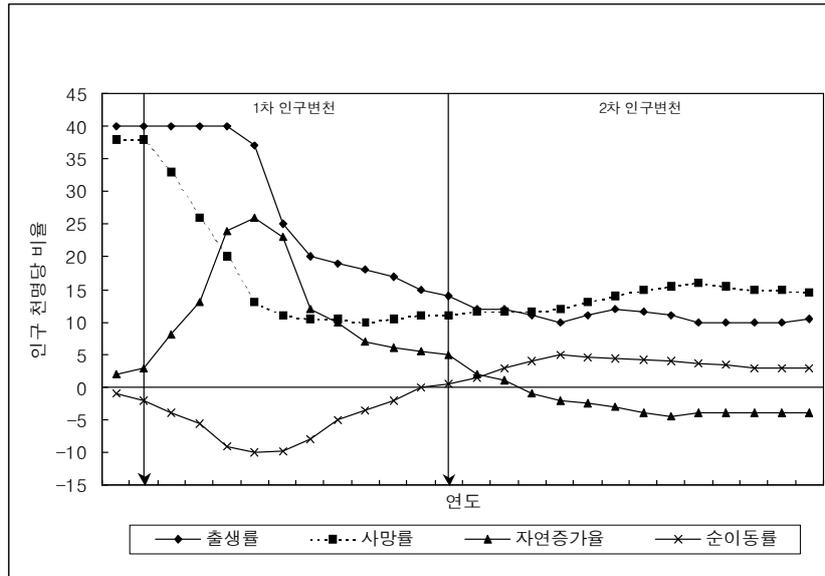
노동시장 구획론에 따르면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 높은 전문숙련 시장과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미숙련 시장으로 구분되는 노동 시장에서, 국민소득이 오르면 자국민들이 미숙련 시장을 회피하기 때문에 국제노동이동 수요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양상으로 아시아 국가가 국제이동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과정이 서유럽 및 북미와 동일한 것으로 관찰되기도 했다(Abella, 1995).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정분야(예, 3D 업종)에서 국내 탄력적인 노동력의 재고가 소진되었다고 판단되면서 외국 노동자의 입국이 증가하였으며 3D 업종을 비롯한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미숙련 노동분야의 외국으로부터의 노동이동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인구변천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인구변천이란 고출생률과 고사망률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사회에서 저출생률과 저사망률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사회로 이행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변천 경로상 저출생·저사망으로 인해 국제순이동이 증가하는 제2차 인구변천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1960년대 초반 해도 우리나라는 독일에 간호사 및 광부로, 베트남에는 서비스 노동자로, 중동에는 건설노동자로 진출했는데, 1987년 이후에는 국내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서 노동 수입국이 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80년대의 남부 유럽 국가처럼 80~90년대에 한국, 일본, 대만 등이 고도 경제성장으로 노동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력 감소로 인한 국제노동이동이 점차 증가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회적인 반감 및 긴장고조로 양보다는 질적인 면이 강조되면서 총이동규모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제순이동이 마이너스(출국초과)에서 플러스(입국초과)로 바뀌면서 점차 증가하다가 피크를 지나 감소하는 경로로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초기 인력부족으로 국제이동자를 받아들이다가, 증가된 국제이동자로 사회경제적 갈등이 증가하면서 전문인력 위주의 제한적인 이민정책으로 바뀌어 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이민정책적 측면에서는 당분간 인종 다변화에 대한 긴장을 피하기 위해 영구이주보다는 임시이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Van de Kaa(1999)

[그림 3] 우리나라의 1차 및 2차 인구변천 모형

나. 혼인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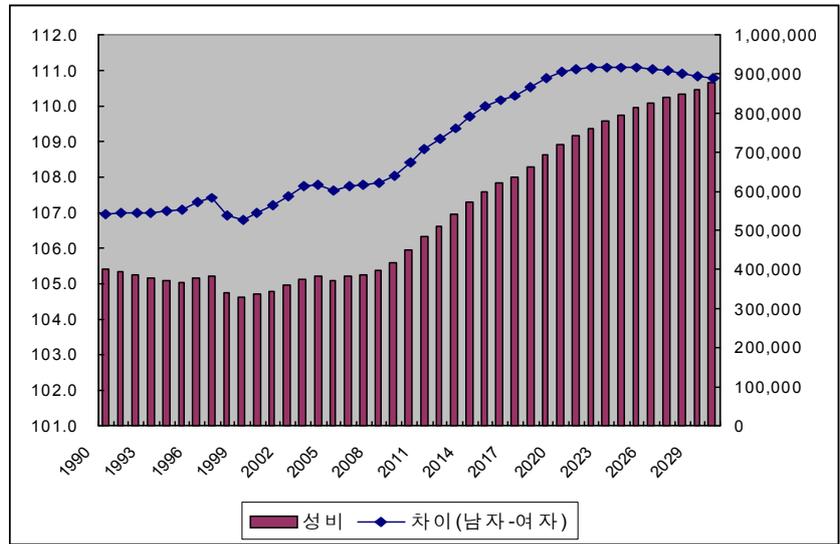
국제이동의 주요인이라 할 수 있는 노동이동과 더불어 혼인에 의한 이동문제도 우리나라의 국제이동 문제를 다룸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혼인 추세는 총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의 비율이 1990년 1.2%에서 2007년 11.1%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측면과 인구학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국제혼인 증가 요인의 경우, 세계화의 진전과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및 가치관의 변화 등을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겠다. 경제의 세계화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시각이 보다 유연해지고 성숙되었으며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단일민족관에 대한 수

정된 가치관이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제혼인의 증가는 급격한 출산력 감소 및 높은 출생성비 등을 이유로 혼인시장에서 남성에 대한 혼인압박(marriage squeeze)이 높아 외국에서 신부를 수입하게 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농촌 총각의 경우 배우자 선택(assortative mating)에서 불리하여 혼인압박이 가중됨으로써 신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80년대 후반 이후의 높은 출생성비 영향으로 주혼인연령층(20-49세)의 성비는 2007년 105.3에서 2020년 108.9, 2030년 110.6으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등의 영향도 당분간 국제혼인의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제혼인을 통해 출생한 자녀들은 다시 국제혼인의 경향을 띠게 되는데, 1995~2000년에서 늘기 시작한 국제혼인에서 출산된 자녀들이 2015년 이후부터 혼인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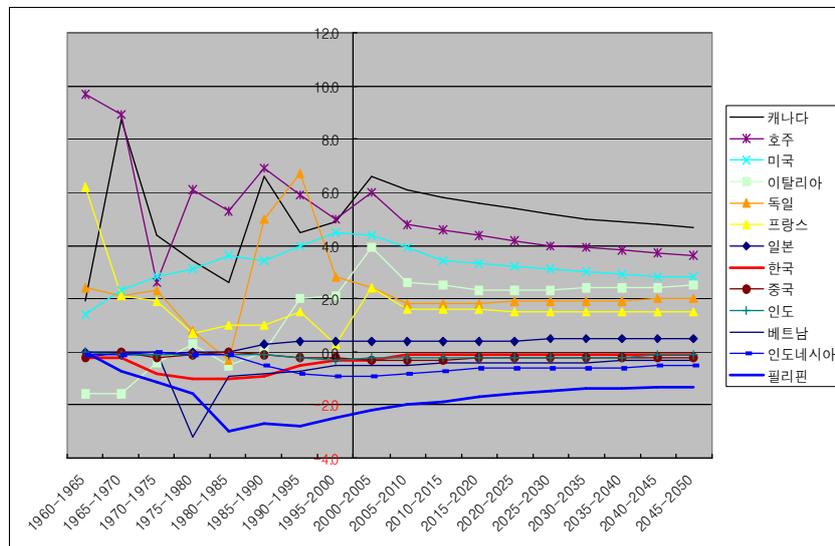
[그림 4] 주혼인 연령층(20-49세)의 성비 및 남녀 차이: 1990-2050년

2. UN의 전망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 추계에 대한 참고지표로서 UN의 세계 인구 및 한국의 대체이동 규모(Replacement Migration)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았다.

가.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6년에 보고된 UN의 세계인구 전망(2006년 개정판)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에서의 국제 순이동률은 2005~2050년 중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유럽의 경우 입국초과 현상이 감소하며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우리나라의 주요 인력 송출국들에서 출국초과 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0.1% 수준의 출국초과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료: UN(2006)

[그림 5] UN의 국제순이동률 전망

나. 우리나라에 대한 UN의 전망

UN(2001년)에서는 2000~2050년 기간 중 시나리오별로 저출산을 경험하는 주요국의 대상으로 대체이동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전망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대한 상황별 6가지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국제이동의 규모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서, 시나리오3의 경우는 2050년까지 최대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3만 명 수준의 국제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나리오4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연령대(working age: 15 - 64세)를 최대규모로 유지하는 것에 필요한 국제이동규모에 대한 전망을 매년 약 12만 9천 명 규모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이동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 1)시나리오1: 1998년 UN인구전망 중위 국제이동추계
- 2)시나리오2: 1998년 UN인구전망 중위 국제이동추계로 1995년 이후는 국제이동이 없음
- 3)시나리오3: 1995년 이후 국제이동이 없을 때, 최고치 수준의 총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이동자 추계
- 4)시나리오4: 1995년 이후 국제이동이 없을 때, 최고치 수준의 working age(15-64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이동자 추계
- 5)시나리오5: 잠재적 부양비(65세 인구/15-64세 인구)가 3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국제이동
- 6)시나리오6: 1995년 이후 국제이동이 없을 때 도달하는 최고의 잠재적 부양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동

<표 7> 한국이 필요로 하게 되는 국제이동 규모: UN 전망

(단위: 천명)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시나리오6
이동누적	-350	0	1,509	6,426	11,595	5,128,147
매년이동	-7	0	30	129	232	102,563

제 4 절 장래 체류외국인 추계방법

1. 체류외국인 추계의 특징

국제인구이동은 크게 자발적 이동과 비자발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자발적 이동의 경우, 더 나은 보수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바라는 경제적 이유를 흡인요인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될 여지가 있는 반면, 전쟁,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동의 경우는 예측 불가능한 현상으로서 외국인 규모의 추정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 요인이다. 하지만 비자발적 이동이 매우 특수한 경우이고 소규모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이동의 대부분을 점하게 되는 노동이동을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체류외국인의 장래 추정은 모형을 단순화할 수 있는 수학적 성장곡선을 이용하였으며 과거의 추이를 성장곡선을 이용해 연장하되, 변화 방향이나 변화량, 템포는 가능한 이론에 근거해 추론하였다. 연도 구간 별로는 선형로그, 지수 등 다른 곡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부문은 국적과 체류 자격으로 나누되, 국적에 의한 구분은 최근 체류 점유율이 높은 순으로 조선족, 중국인, 기타 외국인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단순화하였다. 체류자격에 따른 구분의 경우는 노동, 혼인, 유학, 기타의 4개로 분류하였고, 노동이주는 단순노동과 전문기술 종사자로 구분하였다. 등록 및 단기 구분은 추정된 체류자를 구성비로 배분하였는데 이는 군인, 외교관, 미등록자 등 체류자격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래국제이동 추계에서는 국제이동의 양과 템포가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 및 정책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인구변동 요인(출생 및 사망)보다 추계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체류외국인 추계의 특징 또는 한계점이라 할 수 있겠다.

2. 외국인 통계 자료의 특성

인구통계 측면에서 외국인 규모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다양하

다. 먼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전수로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가장 대표적인 수단일 것이다. 외국인에 대해 성별, 연령은 물론 학력, 교육정도, 직업, 산업 등 다양한 변수를 조사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지만 한국인보다 조사에서 누락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자료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반면 외국인 출입국 자료는 총규모 면에서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일시 체류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정보의 종류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빈약하다.

이에 반해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여 작성되는 자료가 외국인 등록통계이다. 이 자료는 90일 이상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획득해 입국하는 외국인 중에서 실제로 90일 이상 체류할 의향이 있는 외국인만 등록하기 때문에 출입국 과정에서 비자의 종류에 따라 집계되는 장기 체류 외국인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하지만 그렇다고 등록된 외국인만을 상주하는 인구로 볼 수는 없다. 90일 미만의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불법체류자이면서 통계적으로는 상주 외국인이 된다.

여기서 시도되는 외국인 추계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체류외국인은 다시 등록외국인과 단기체류자로 구분하여 추계되기 때문에, 상주인구를 이용할 때는 등록외국인 추계자료를 사용하면 된다.

3. 가 정

가. 단기적 가정

장래 체류외국인에 대한 전망에 있어 향후 5년 정도 시점까지의 단기적인 가정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가정이 전제되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인구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25-49세 인구는 2008년부터 감소하고, 혼인시장의 성비 증가 및 국민들의 3D 직

중 기피현상으로 전체 노동이주 및 혼인이주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전체적인 단기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의 주요 인력 송출국인 아시아 국가(중국 제외)와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 확대에 이들 국가로부터 노동 및 혼인 이주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
- 2) 중국인은 경제성장, 특히 베이징올림픽 이후 소득 증가 및 자국내 노동력 부족(1가구 1자녀 정책으로 태어난 세대가 노동력으로 진입)으로 가까운 장래에 입국자 증가가 정체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진출한 중국인 network의 작용으로 일정한 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다.
- 3) 중국 내 조선족의 경우 현재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구조 상으로도 20세 미만 층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 조만간 노동이나 혼인이동 모두 입국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가정한다.

나. 중장기적 가정

향후 5년 이후부터 단기적 추계를 위해 필요한 가정의 내용과 5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적인 추계에서 필요한 가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전체적으로는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이동과 중국, 베트남 위주의 혼인이주를 통한 현재와 같은 양적 성장 현상이 한국 사회의 배타성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로 볼 때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단, 질적인 성장이라 할 수 있는 유학, 전문인력 등 우수 전문인력의 유입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가정한다.

- 2) 국제혼인은 우리나라 혼인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비 불균형의 영향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 특히, 도시 지역의 국제결혼에 의한 재혼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며, 2015년 이후에는 90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혼인 1세대의 자녀들에 의한 영향으로 국제혼인에서 echo effect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한다.

4. 추계 방법

기본적으로 추계는 법무부의 국가별 출입국자료를 이용하여 지수 및 선형로그식을 통해 국가별 규모를 추정하였다. 체류자격의 구분은 크게 혼인과 혼인이외의 이주로 구분하여 혼인이주 인구를 별도의 방식으로 추정하며, 이를 혼인이외의 체류자격 추정분과 합산하여 전체 추정 인구를 구하게 된다.

〈표 8〉 국적별 추정방법

국 적	추 정 방 법
- 조선족, 중국	2010년 이전: 지수함수($y=ae^{bt}$) 이용
	2010년 이후: 선형로그($Y=a+b \times \text{Ln}(t)$) 이용
- 기타 국가	2012년 이전: 지수함수($y=ae^{bt}$) 이용
	2012년 이후: 선형로그($Y=a+b \times \text{Ln}(t)$) 이용

혼인 이외의 체류자격의 경우, 우선 혼인 이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총규모를 2010년 즈음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추계하였으며 혼인을 제외한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분할은 최근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구성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혼인이주에 대한 추계의 경우는 장래 인구추계에서 추정된 연령별 추계결과를 이용하여 산정한 주혼인연령층(30-49세)의 과잉 남자 규모에 최근 국제혼인 비율을 적용시켜 남자 국제혼인을, 전체 국제혼인에서 외국인 남편인 경우의 비율로 여자 국제혼인을 추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전체 국제혼인 중 국내거주 비율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비율(국제혼인 남자는 97.1%, 여자는 80.8%가 국내거주)을 적용하여 추정하

였다. 각 연도별 국제혼인 체류는 그해의 국제혼인발생 추정건수에 전년 국제혼인 체류의 잔존율(이혼, 귀화 등을 감안)을 곱하여 추정하는 한편, 2015년부터는 1990년부터의 국제혼인 증가에 따른 echo effect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등록외국인에 대한 추정에 있어서는 체류외국인 중 등록외국인의 비율을 선형로그로 추정하여 적용하였으며, 10세 간격의 연령별 추계에서도 선형로그식을 이용하게 되나 31-40세 구간은 노동이동이 활발한 연령대이므로 지수식을 이용하였다.

제5 절 장래 체류외국인 추계 결과

1. 국적별 체류외국인

장래 국적별 체류외국인 추계 결과는 2007년 말 현재 106만 6천 명에서 2010년 말에는 144만 6천 명, 2020년 말에는 176만 7천 명, 2030년 말에는 191만 1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선족은 2007년 말 32만 9천 명(체류 외국인의 30.8%)에서 방문취업제 등의 영향으로 계속 늘어 2014년 말에는 53만 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중국 내 조선족의 인구구조상 20대 미만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어 2015년 이후에는 한국에 유입되는 인구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인은 2007년 말 17만 5천명(체류 외국인의 16.4%) 2030년 말에는 43만 명(체류 외국인의 23%)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 및 중국 내 노동력 부족으로 입국자 증가폭이 줄어들지만, 기진출한 중국인 네트워크에 의한 연쇄이동(chain migration)의 영향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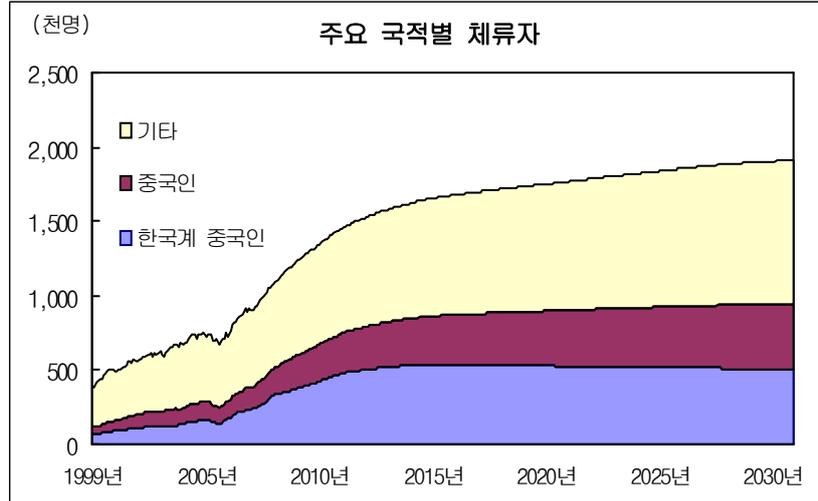
기타 외국인의 경우는 2007년 말 56만 3천 명(체류 외국인의 52.8%)였는데, 2020년 말에는 86만 6천 명, 2030년 말에는 96만 9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9〉 주요 국적별 체류 외국인 추정

(천명, %)

연도	체류자		조선족		중국인		기타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2005	747.5	100.0	167.6	22.4	114.4	15.3	465.4	62.3
2006	910.1	100.0	236.9	26.0	145.4	16.0	527.9	58.0
2007	1,066.3	100.0	328.6	30.8	174.8	16.4	562.8	52.8
2008	1,216.1	100.0	371.2	30.5	216.8	17.8	628.1	51.6
2009	1,336.1	100.0	419.5	31.4	245.6	18.4	671.0	50.2
2010	1,445.9	100.0	474.3	32.8	267.9	18.5	703.8	48.7
2011	1,518.2	100.0	501.6	33.0	286.1	18.8	730.6	48.1
2012	1,572.7	100.0	518.0	32.9	301.4	19.2	753.3	47.9
2013	1,616.7	100.0	529.4	32.7	314.5	19.5	772.8	47.8
2014	1,653.2	100.0	537.7	32.5	325.8	19.7	789.6	47.8
2015	1,676.1	100.0	535.8	32.0	335.8	20.0	804.5	48.0
2016	1,696.3	100.0	533.5	31.5	344.7	20.3	818.0	48.2
2017	1,714.3	100.0	531.0	31.0	352.9	20.6	830.3	48.4
2018	1,731.4	100.0	528.7	30.5	360.6	20.8	842.1	48.6
2019	1,749.0	100.0	526.7	30.1	368.3	21.1	854.1	48.8
2020	1,766.9	100.0	524.9	29.7	375.9	21.3	866.1	49.0
2021	1,785.2	100.0	523.2	29.3	383.6	21.5	878.4	49.2
2022	1,802.4	100.0	521.4	28.9	390.9	21.7	890.1	49.4
2023	1,819.3	100.0	519.6	28.6	398.0	21.9	901.7	49.6
2024	1,836.4	100.0	517.8	28.2	405.2	22.1	913.4	49.7
2025	1,852.7	100.0	515.9	27.8	412.1	22.2	924.7	49.9
2026	1,869.3	100.0	514.1	27.5	419.0	22.4	936.3	50.1
2027	1,883.8	100.0	511.9	27.2	425.3	22.6	946.7	50.3
2028	1,894.8	100.0	509.2	26.9	430.4	22.7	955.1	50.4
2029	1,904.0	100.0	506.3	26.6	435.1	22.8	962.7	50.6
2030	1,911.6	100.0	503.3	26.3	439.1	23.0	969.2	50.7

주: 1. 2005~2007은 실적, 2008~2030년은 추정
 2. 각 연도말 기준임



[그림 6] 국적별 체류 외국인수 추정

2.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의 추계에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2007년 말 41만 명(체류 외국인의 38.5%)이었는데, 3D 업종 등 저임금 업종의 인력난 지속으로 계속 늘어 2020년 말에는 71만 2천명, 2030년 말에는 72만 7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기술 종사자는 2007년 말 2만 9천 명(체류 외국인의 2.7%)에서 2020년 말에는 5만 2천 명, 2030년 말에는 5만 7천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혼인이주는 2007년 말 11만 명(체류 외국인의 10.4%)에서 국내 혼인 시장의 성비 불균형 지속과 남자 재혼의 증가로 계속 늘어, 2020년 말에는 19만 2천 명, 2030년 말에는 25만 3천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유학은 2007년 말 3만 9천 명(체류 외국인의 3.6%)에서 점차 늘어 2020년에는 12만 5천 명, 2030년에는 14만 7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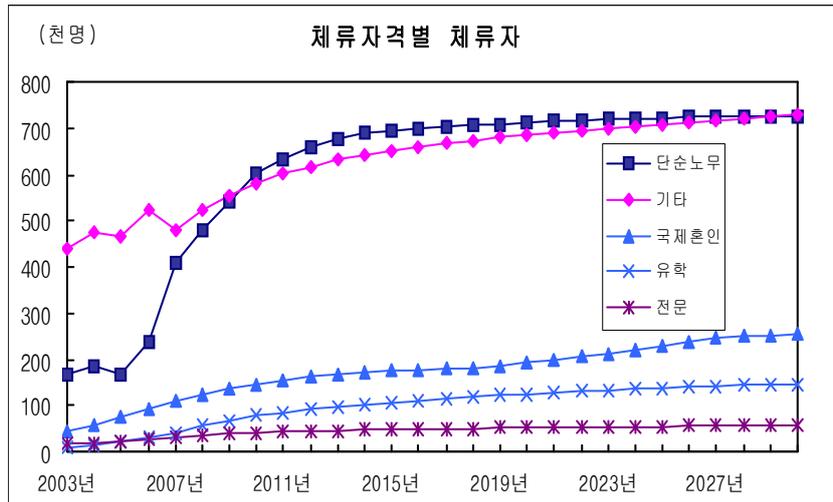
<표 10> 체류자격별 외국인 추정

(천명, %)

연도	체류자		단순노무		전문		혼인		유학		기타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2005	747.5	100.0	166.4	22.3	20.2	2.7	75.0	10.0	20.7	2.8	465.2	62.2
2006	910.1	100.0	237.9	26.1	24.3	2.7	93.8	10.3	30.1	3.3	524.1	57.6
2007	1,066.3	100.0	410.4	38.5	28.9	2.7	110.4	10.4	38.9	3.6	477.7	44.8
2008	1,216.1	100.0	480.6	39.5	34.1	2.8	124.3	10.2	55.7	4.6	521.5	42.9
2009	1,336.1	100.0	540.8	40.5	37.5	2.8	135.7	10.2	67.9	5.1	554.3	41.5
2010	1,445.9	100.0	601.0	41.6	40.1	2.8	145.5	10.1	77.7	5.4	581.7	40.2
2011	1,518.2	100.0	634.9	41.8	42.2	2.8	154.0	10.1	85.5	5.6	601.6	39.6
2012	1,572.7	100.0	658.0	41.8	43.8	2.8	161.3	10.3	92.2	5.9	617.4	39.3
2013	1,616.7	100.0	675.8	41.8	45.3	2.8	166.8	10.3	98.0	6.1	630.8	39.0
2014	1,653.2	100.0	690.2	41.8	46.5	2.8	171.0	10.3	103.1	6.2	642.4	38.9
2015	1,676.1	100.0	695.5	41.5	47.6	2.8	174.0	10.4	107.6	6.4	651.4	38.9
2016	1,696.3	100.0	699.8	41.3	48.6	2.9	176.7	10.4	111.6	6.6	659.6	38.9
2017	1,714.3	100.0	703.5	41.0	49.5	2.9	178.8	10.4	115.4	6.7	667.0	38.9
2018	1,731.4	100.0	706.9	40.8	50.4	2.9	181.6	10.5	118.8	6.9	673.8	38.9
2019	1,749.0	100.0	709.8	40.6	51.1	2.9	186.1	10.6	122.0	7.0	680.0	38.9
2020	1,766.9	100.0	712.5	40.3	51.8	2.9	191.8	10.9	125.0	7.1	685.8	38.8
2021	1,785.2	100.0	714.8	40.0	52.5	2.9	198.9	11.1	127.8	7.2	691.2	38.7
2022	1,802.4	100.0	716.9	39.8	53.1	2.9	205.7	11.4	130.4	7.2	696.2	38.6
2023	1,819.3	100.0	718.7	39.5	53.7	3.0	213.0	11.7	132.9	7.3	701.0	38.5
2024	1,836.4	100.0	720.4	39.2	54.2	3.0	221.0	12.0	135.3	7.4	705.4	38.4
2025	1,852.7	100.0	721.9	39.0	54.8	3.0	228.9	12.4	137.5	7.4	709.7	38.3
2026	1,869.3	100.0	723.1	38.7	55.2	3.0	237.7	12.7	139.6	7.5	713.7	38.2
2027	1,883.8	100.0	724.2	38.4	55.7	3.0	244.8	13.0	141.6	7.5	717.4	38.1
2028	1,894.8	100.0	725.2	38.3	56.2	3.0	248.8	13.1	143.6	7.6	721.0	38.1
2029	1,904.0	100.0	726.0	38.1	56.6	3.0	251.5	13.2	145.4	7.6	724.5	38.0
2030	1,911.6	100.0	726.6	38.0	57.0	3.0	253.0	13.2	147.2	7.7	727.7	38.1

주: 1) 2005~2007은 실적, 2008~2030년은 추정

2) 각 연도말 기준임



[그림 7]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수 추정

3. 연령별 체류외국인

연령별 체류외국인의 분포에 대한 전망은 20대>30대>40대>50대>61세 이상>10대>10세미만의 순서일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2007년 현재 30만4천명(전체의 28.5%) 수준에서 2030년에는 57만 3천 명(전체의 30.0%)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30대는 2007년에 30만 1천 명(전체의 28.3%)에서 2030년에는 49만 4천 명(전체의 25.8%)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20대와 30대 모두가 노동이동 대상의 연령대로서 모두 증가 현상은 뚜렷하지만 20대가 혼인이동을 중심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40대는 2007년 말 20만 2천 명(전체의 18.9%)에서 2030년에는 39만 9천 명(전체의 20.9%)으로 증가, 50대도 12만 4천 명(전체의 11.7%)에서 24만 9천 명(전체의 13.1%)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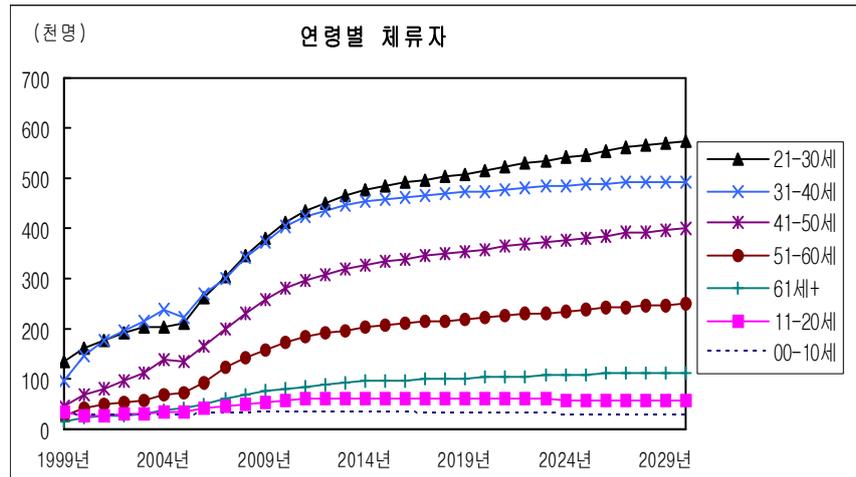
〈표 11〉 연령별 외국인 추정

(천명, %)

연도	0-10세		11-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2005	28.0	3.8	35.3	4.7	212.7	28.5	224.1	30.0	132.8	17.8	71.4	9.6	43.1	5.8
2006	29.2	3.2	42.4	4.7	261.3	28.7	271.1	29.8	165.8	18.2	91.5	10.1	48.8	5.4
2007	29.4	2.8	46.3	4.3	303.6	28.5	301.4	28.3	201.6	18.9	124.3	11.7	59.7	5.6
2008	32.0	2.6	51.4	4.2	346.6	28.5	342.4	28.2	232.0	19.1	143.3	11.8	68.5	5.6
2009	33.7	2.5	55.1	4.1	381.3	28.5	374.7	28.0	257.0	19.2	158.8	11.9	75.6	5.7
2010	35.0	2.4	58.3	4.0	413.2	28.6	403.9	27.9	280.1	19.4	173.3	12.0	82.1	5.7
2011	35.4	2.3	60.0	4.0	434.6	28.6	422.4	27.8	296.0	19.5	183.3	12.1	86.5	5.7
2012	35.3	2.2	60.9	3.9	451.1	28.7	435.9	27.7	308.4	19.6	191.2	12.2	89.9	5.7
2013	35.0	2.2	61.5	3.8	464.6	28.7	446.3	27.6	318.8	19.7	197.8	12.2	92.7	5.7
2014	34.6	2.1	61.7	3.7	476.1	28.8	454.6	27.5	327.6	19.8	203.4	12.3	95.1	5.8
2015	34.0	2.0	61.6	3.7	483.8	28.9	459.1	27.4	333.8	19.9	207.3	12.4	96.6	5.8
2016	33.3	2.0	61.3	3.6	490.7	28.9	462.8	27.3	339.3	20.0	210.9	12.4	98.0	5.8
2017	32.6	1.9	61.0	3.6	497.1	29.0	465.9	27.2	344.3	20.1	214.1	12.5	99.3	5.8
2018	32.0	1.8	60.7	3.5	503.2	29.1	468.7	27.1	349.1	20.2	217.2	12.5	100.5	5.8
2019	31.3	1.8	60.4	3.5	509.6	29.1	471.6	27.0	353.9	20.2	220.4	12.6	101.8	5.8
2020	30.8	1.7	60.2	3.4	516.1	29.2	474.6	26.9	358.8	20.3	223.5	12.6	103.0	5.8
2021	30.2	1.7	60.0	3.4	522.7	29.3	477.6	26.8	363.7	20.4	226.7	12.7	104.3	5.8
2022	29.6	1.6	59.8	3.3	529.1	29.4	480.3	26.6	368.4	20.4	229.7	12.7	105.5	5.9
2023	29.1	1.6	59.7	3.3	535.4	29.4	482.9	26.5	373.0	20.5	232.6	12.8	106.6	5.9
2024	28.6	1.6	59.5	3.2	541.8	29.5	485.5	26.4	377.6	20.6	235.6	12.8	107.8	5.9
2025	28.1	1.5	59.3	3.2	548.1	29.6	487.9	26.3	382.0	20.6	238.4	12.9	108.9	5.9
2026	27.6	1.5	59.2	3.2	554.4	29.7	490.4	26.2	386.4	20.7	241.3	12.9	110.1	5.9
2027	27.1	1.4	58.9	3.1	560.2	29.7	492.2	26.1	390.4	20.7	243.9	12.9	111.1	5.9
2028	26.5	1.4	58.6	3.1	564.9	29.8	493.1	26.0	393.6	20.8	246.0	13.0	111.9	5.9
2029	26.0	1.4	58.3	3.1	569.2	29.9	493.6	25.9	396.5	20.8	247.8	13.0	112.6	5.9
2030	25.4	1.3	57.9	3.0	573.0	30.0	493.6	25.8	399.0	20.9	249.5	13.1	113.2	5.9

주: 1. 2005~2007은 실적, 2008~2030년은 추정

2. 각 연도말 기준임



[그림 8] 연령별 체류 외국인수 추정

4. 등록 및 체류기간별 체류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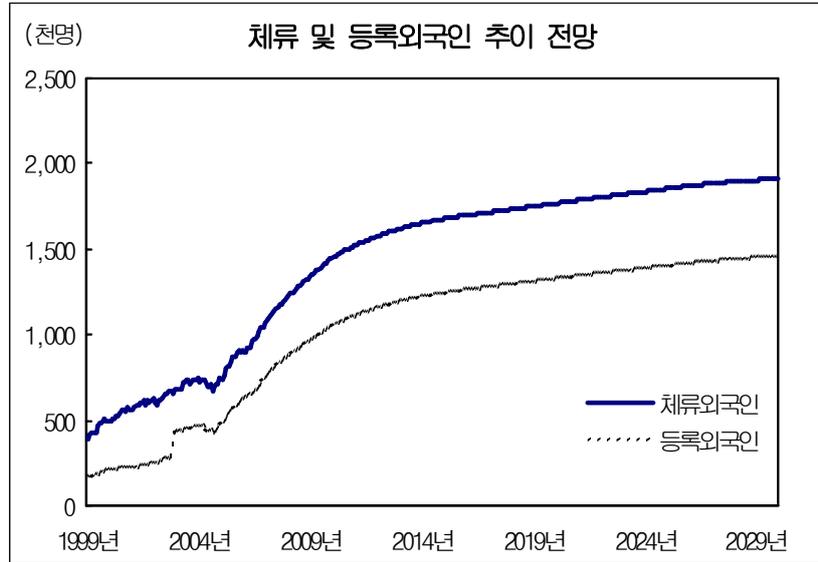
체류기간별 구분에 있어서는 3개월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지를 등록한 외국인은 2007년 말 76만6천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외국인의 규모는 2020년에는 133만1천명, 2030년에는 146만1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점유율 면에서는 2007년 현재 71.8%에서 2030년 76.4%로 4.6%p 증가하면서 향후 등록외국인의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추계되었으나 이는 외국인 정책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12〉 등록 및 단기체류별 외국인 추정

(천명, %)

	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단기체류	
	천명	%	천명	%	천명	%
2005	747.5	100.0	485.1	64.9	262.3	35.1
2006	910.1	100.0	631.2	69.4	278.9	30.6
2007	1,066.3	100.0	765.7	71.8	300.5	28.2
2008	1,216.1	100.0	879.9	72.4	336.2	27.6
2009	1,336.1	100.0	972.6	72.8	363.5	27.2
2010	1,445.9	100.0	1,057.9	73.2	388.0	26.8
2011	1,518.2	100.0	1,115.7	73.5	402.6	26.5
2012	1,572.7	100.0	1,160.2	73.8	412.5	26.2
2013	1,616.7	100.0	1,196.7	74.0	420.0	26.0
2014	1,653.2	100.0	1,227.5	74.3	425.6	25.7
2015	1,676.1	100.0	1,248.1	74.5	428.0	25.5
2016	1,696.3	100.0	1,266.4	74.7	429.9	25.3
2017	1,714.3	100.0	1,282.8	74.8	431.4	25.2
2018	1,731.4	100.0	1,298.6	75.0	432.8	25.0
2019	1,749.0	100.0	1,314.5	75.2	434.5	24.8
2020	1,766.9	100.0	1,330.5	75.3	436.4	24.7
2021	1,785.2	100.0	1,346.7	75.4	438.4	24.6
2022	1,802.4	100.0	1,362.1	75.6	440.3	24.4
2023	1,819.3	100.0	1,377.1	75.7	442.2	24.3
2024	1,836.4	100.0	1,392.2	75.8	444.2	24.2
2025	1,852.7	100.0	1,406.6	75.9	446.1	24.1
2026	1,869.3	100.0	1,421.3	76.0	448.1	24.0
2027	1,883.8	100.0	1,434.2	76.1	449.6	23.9
2028	1,894.8	100.0	1,444.4	76.2	450.4	23.8
2029	1,904.0	100.0	1,453.3	76.3	450.8	23.7
2030	1,911.6	100.0	1,460.8	76.4	450.8	23.6

주: 1) 2005~2007은 실적, 2008~2030년은 추정
 2) 각 연도말 기준임



[그림 9] 등록 및 단기체류별 외국인수 추정

제6절 결론 및 토론

체류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체류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은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장래 외국인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것은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은 물론 인구정책이나 국가 인력수급계획, 국가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반면 외국인의 장래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장래인구변동을 전망하는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으로 인구변동 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추계를 한다. 하지만 외국인 추계는 정책이나 비

즈니스 사이클 등 인구통계가 아닌 다른 요인들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는 산술증가로 장래 외국인 규모를 예측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한 추정방법이라 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각종 국제인구이동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국제이동의 기본 방향을 먼저 정하였다. 인구변천이론에 의거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국제이동의 순유입을 예측하면서, 혼인압박 이론에 의거 국제혼인의 증가를 가정하였다.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의 경제력 차이가 노동이동을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하되, 중국의 경우에는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과 1자녀 낳기 정책의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젊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해외로의 인구송출이 크게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전문직종 외국인력의 경우 정부에서 유인책을 많이 내 놓고 있어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울러 국제혼인 자녀들의 경우 다시 국제혼인을 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이 echo effect 부분도 2세들이 혼인시장에 진입하는 연도에 맞추어 반영하였다. 장래의 외국인 인구변동은 전국 장래인구추계처럼 매크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대신 수학적 궤도(trajjectory)를 이용해 과거 추이를 접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는 지수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완만하게 증가하는 구간으로 가정한 연도에는 선형로그 함수를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빠른 변화에서 완만한 변화로 전환하는 변곡점은, 추계기준 시점 기준으로 중국 및 조선족은 3년 후인 2010년, 기타 외국인은 5년 후인 2012년으로 하였다.

본 추계 결과에서는 2008년 전체 체류외국인 규모가 1,216.1천 명에서 2030년에는 1,911.6천 명 규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규모를 48,606.8천 명에서 48,634.5천 명으로 추계한 장래인구추계결과와 비교해 볼 때, 체류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인구의 2.5%에서 3.9%로 높아짐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체류자격별 추계결과에서 ‘단순노무’, ‘기타’ 등의 비율이 정체하거나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혼인’과 ‘유학’에 의한 체류외국인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가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책에 있어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순노무’를 위한 체류외국인 문제와 더불어 국제혼인에 의한 다문화가족 증가에 대한 정책과 외국인 유학에 대한 정책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추계결과가 3개월 이상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부문의 참고자료로서 보다 큰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 체류자의 추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류기간에 따른 체류자의 규모를 추계하여야 함을 밝혀둔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이용해 레코드 매칭 기법을 적용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골라내 국제인구이동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 자료를 이용해 한 10년 정도까지 확장해 성 및 연령별로 또는 국적 및 체류자격별로 평균 체류기간을 작성해 특성별로 체류확률을 만든다면 보다 의미있는 외국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추계방법과 관련해서도 보다 설득력 있고 과학적인 추계를 위한 기법개발 노력이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두섭, 2003, "연변 조선족 사회의 최근 변화: 사회인구학적 접근", 「한국인구학」 : 111-145
- 석현호, 2006, "국제인구이동이론". Pp. 198-209. 「인구대사전」. 한국인구학회편: 통계청.
- 설동훈, 2006, "국제인구이동". Pp. 181-197. 「인구대사전」. 한국인구학회편: 통계청.
-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2005-2050」
- 통계청, 2007, 「장래가구추계: 2005-2030」
- 통계청, 2006, 「2005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 한국인구학회, 2006, 「인구대사전」, 통계청
- Douglas S. Massey; Joaquin Arango; Graeme Hugo; Ali Kouaouci; Adela Pellegrino; J. Edward Taylor,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pp.431-466.
- Douglas S. Massey; Rene M. Zenteno, 1999, "The dynamics of mass migration",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 Euro-Mediterranean Consortium for Applied Research on International Migration (CARIM), 2006, "Forecasting Economic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Euro-Mediterranean Area, 2005-2025", CARIM
- Everett S. Lee,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pp.47-57.
- SEDAC, "Global Population Projections" Socioeconomic Data and Applications Center, of Columbia University.
- UN, 2000, "Replacement Migration: Is a Solution to Declining and ageing Populations?", United Nations
- UN, 2000, "The UN Population Division on Replacement Migr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2): pp.413-417.
- UN, 2006, "World Population Prospects", United Nations
- Van de Kaa. D.J., 1999, Europe and its population: the long view. pp. 1-194

in: D. J. van de Kaa, H. Leridon, G. Gesano and M. Okolski,
European Populations: Unity in Diversity, Dordrecht etc., Kluwer
Academic Publishers